

일주문



청년여름마당 개최
인드라광생명공동체 상임대표 도법 스님은 8월 2-5일 남원 실상사와 지리산 등지에서 '청년여름마당-산내야 뭐하니'를 개최한다. (02)576-1886



'2006 피스로드' 개최
나눔의 집 원장 원행 스님은 8월 7-12일 한국과 일본의 대학생 40명을 대상으로 평화캠프인 '2006 피스로드 (Peace Road)'를 개최한다.



효행상 시상식
서울 불광사 회주 지홍 스님은 8월 8일 오전 10시 30분 경내에서 우란분절을 맞아 효자 효부를 대상으로 효행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불교의 대중화' 주제 법문
한국불교 금강선원 총재 황안 스님은 7월 29일 오후 6시 서울 동산불교회관에서 '불교의 대중화'를 주제로 법문한다. (02)732-1206



큰스님 초청 백종기도법회
성남 불국사 주지 효관 스님은 8월 2일부터 8일까지 매일 큰스님을 초청해 백종 7일 지장기도법회를 봉행한다. (031)755-0329



명원문화재단 보령지부 개원
보령 세원사 주지 정운 스님은 명원문화재단 보령지부장을 맡아 7월 22일 명원문화재단 보령지부 개원식을 열었다.



'마이 리더스 클럽' 개설
불교이카데미 윤천수 이사장은 '53도반과 함께 떠나는 구뱌여행'이라는 주제로 재가불자 지도자양성과정 마이 리더스 클럽을 개설했다.



2006 한국교수불자대회
한국교수불자연합회 김용표 회장은 8월 17-19일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한국불교와 세계불교와의 대화'를 주제로 2006 한국교수불자대회를 연다.



중국 구화산 성지순례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성윤갑 회장은 7월 30일부터 8월 5일까지 회원들과 함께 중국 구화산 등지로 성지순례를 떠난다. (02)739-1080

인사

건국대학교 7월 20일 성태용 교수를 문과대학장으로, 서혜숙 교수를 인문과학대학장으로 각각 임명했다.

"사회지도층 불자 네트워크 구성할 것"

불교인재개발원 초대 이사장 허경만씨

"너무 큰 직책을 맡게 돼 저에게 맡겨진 소임을 다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하지만 '불교인재개발'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7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열린 조계종 중앙신도회 불교인재개발원 설립대회에서 초대 이사장을 맡은 허경만 전 국회부의장(69·사진). 허경만 이사장은 불교인재개발이라는 정책에서 오는 무게감 때문인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정차권 등에서 직접 느꼈던 불교인재와 관련한 제각각의 불교 목소리가 높아졌다.

다. 문제는 이 때문에 불자임을 숨기거나 불교를 기피하는데 있습니다."
허경만 이사장은 1963년 고시사 법과에 합격한 뒤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10-14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신민당 원내총무와 민주당 최고위원, 국회사무위원회위원장 등을 맡으면서 불교인재 기근 현상을 목도한 것이다.
"이제 사회 전반에 노출되지 않는 불자들을 찾아 낼 생각입니다. 그들을 조직화한 뒤 네트워크를 형성시켜 응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인재 발굴 못지않게 인재 교육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할머니와 어머니를 따라 절에 드나들었던 허경만 이사장은 절에서 고시공부를 하면서 불교와



본격적으로 인연을 맺었다. 법명은 순천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에게 받은 허봉(虛峯).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진 빚 때문에 이사장직을 맡게 됐다는 허경만 이사장은 "빚은 갚는다는 심정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말을 맺었다.
허경만 이사장은 현재 순천대 석좌교수이며, 저서로는 <맑은 내일> <근의가 존중받는 사회를 위하여> 등이 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조계종복지재단, 건강가정지원센터 개소



조계종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지현)은 7월 20일 종로구 창신2동 동부여성문화센터 3층에 종로구건강가정지원센터를 열고 개소식을 봉행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조계종복지재단이 지난 6월 1일 종로구로부터 위탁 받은 첫 센터다. 상담, 교육, 문화 등의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02)764-3524

청주청원불교련, 불자의원에 감사패



청주청원불교연합회는 7월 19일 보현사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청주시의회 남동우 의장을 비롯한 8명의 불자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며 불교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기총회에서는 또 9월 중 개최할 '2006 불교문화제'에 많은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부산 공덕원,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



부산 공덕원(주지 효선은)은 7월 13일 인도 쿠시나가르 열반사에서 기증된 부처님 진신사리를 공덕원 법당에 봉안하고 진신사리 친견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서 효선 스님은 "이 사리를 보기 위해 기울이는 정성처럼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참나를 찾는 데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법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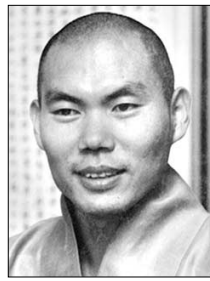
송산노인복지회관 무료진료



송산노인복지회관(관장 석봉)은 7월 20일 의정부시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 및 진료 서비스를 실시했다. 경기도 제2차 경기도 광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됐다고도 밝혔다. 시상식은 7월 29일 오후 7시 인각사 특별무대에서 열렸다.

노인전문병원 건립 불사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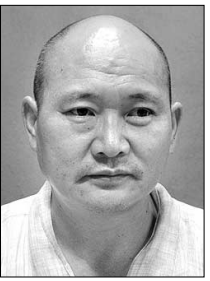
선서화각전 개최한 우학 스님



"작품을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하면서 그냥 즐겁게 재미있게 했습니다."
무의탁노인 요양전문병원 건립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KBS대구방송총국 제2전시실에서 선서화각전을 개최한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회주 우학 스님(사진)은 14일 열린 개관식에서 작품을 준비하는 동안의 마음을 이같이 밝혔다. 선서화각전을 통해 "인생은 연극"이라는 가르침을 전한 것. 우학 스님은 이번 선서화각전에서 1년여 동안 준비한 선화와 전각 등 80여 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2005년 11월에 착공한 무의탁노인 요양전문병원 무량수전은 대구시 남구 봉락동 1100여 평의 대지에 지하2층 지상 3층 연면적 2600여 평 규모로 건립되고 있으며, 오는 9월 낙성식을 기정 예정이다. 배지선 기자

가진것 모두 주기 운동 확산 앞장

부산생명나눔실천본부장 원범 스님



"헌 집 버리고 새 집으로 이사 가는데 무슨 미련이 있었습니까? 필요한 분이 써주면 감사할 뿐입니다."
(사)생명나눔실천 부산 지역본부 본부장을 맡게 된 원범 스님(부산 선암사 주지·사진)은 장기기증서에 서명한 후 "도반과 지인들에게 서명운동 하나라도 오늘에야 내 장기기증서에 서명을 마쳤다"며 맺음을 지었다.
원범 스님은 "스님들과 달리 불자들은 사후 매장이라는 틀에 묶여 장기기증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자고 일어나면 새 옷으로 갈아입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것처럼, 내 몸을 옷이라 생각한다면 두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원범 스님은 "여러 사람의 피와 살, 무엇보다 마음이 함께하는 일이라 든든하다"고 밝혔다. 이은아 기자

제2회 일연문학상 고희형 시인 수상... 청소년 문학공모전 송인환군 대상



군위 인각사와 일연학연구원(원장 상인)은 일연선사 탄신 800돌을 맞는 올해 제2회 일연문학상 수상자로 시인 고희형(52·사진)씨를 선정했다. 고희형 시인이 최근 펴낸 시집 <밤 미시령>은 담백하게 읽히면서도 만만하지 않은 수사로 우리문학의 분류라 할 수 있는 그

리움의 정서를 개성 있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심사위원들의 평이다.
신경림, 나태주, 이하석, 김수복 시인 등이 참여한 심사위원회는 "7월 15일 본심에 오른 4명의 후보자고형림, 이경림, 이준관, 최동호가 모두 뛰어난 감성으로 우리 문학의 한 기둥으로서의 면모를 보

과 겸임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인각사와 일연학연구원은 지난 5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전국의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공모한 청소년문학공모전에서 서울자양고등학교 3학년 송인환군이 대상을 차지하며 문화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됐다고도 밝혔다.
고형림 시인은 1979년 '현대문학' 시추천으로 등단해 <시평>편집을 맡고 있으며 현재 명지대학교 문예창작

배지선 기자 jisun@buddhapia.com

대도무문 병술년 쌍춘쌍오 쌍88일 백중대제로 천년을 엮어갈 계룡도읍천대명산 대운맞이... 생명의 근본은 태식이 있고, 운명과 수명은 내마음자리에 있으며 생노병사 해탈법은 경신 도통에 있느니라. 도인지방생들과 도인들에게 특별히 이날 법회에는 신선이 되는 운모란전식복용의식도봉행 운모단을 복용하시면 팔맥이 살아나고 환골탈퇴하여 검은 머리가 희어지고 수행을 방해하는 일체 마장을 소멸하며 경신일 정오에 도인들은 서출동유로 흐르는 지장수로 복용하면 마장도 철폐치 못하고 도통견성하여 신선에 길로 들어가는 비법인 것이다.

신비의 마이산 탐사 탐영제 방생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마이산 탐사의 탐영제... 기묘한 산이 있어 좋고, 불가사의한 탐이 있어 신비스러운 곳,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탐영제 방생기도